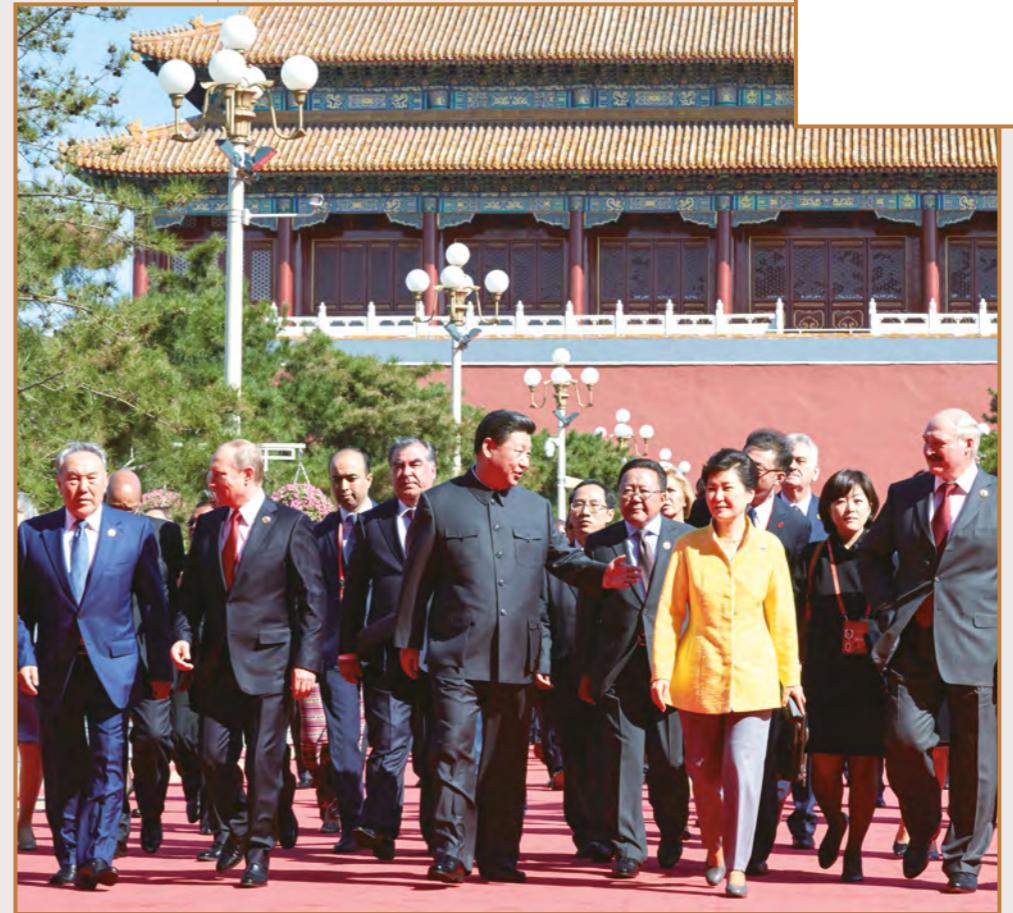


2015

박근혜 대통령
중국 방문기





2015

박근혜 대통령
중국방문기

2015.09.02. - 2015.09.04.

베이징
北京
BEIJING

03-10

상하이
上海
SHANGHAI

11-18

중국 방문
경제성과

19-22



베이징

北京 · BEIJING

박근혜 대통령 중국방문
2015.09.02. - 2015.09.03.



● 베이징
● 北京 BEIJING

● 상하이
● 上海 SHANGHAI

베이징
도착

한·중 정상회담
및 특별오찬

05-07

리커창
총리 면담

08

시진핑 주석 내외
주최 환영만찬

09-10

2015년 9월 3일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대회
기념 촬영 및 대회참관

09-10

시진핑 주석 초청
오찬 리셉션

09-10

베이징
출발

두 정상의 여섯 번째 만남, 환난지교患難之交의 역사를 바탕으로 더 굳건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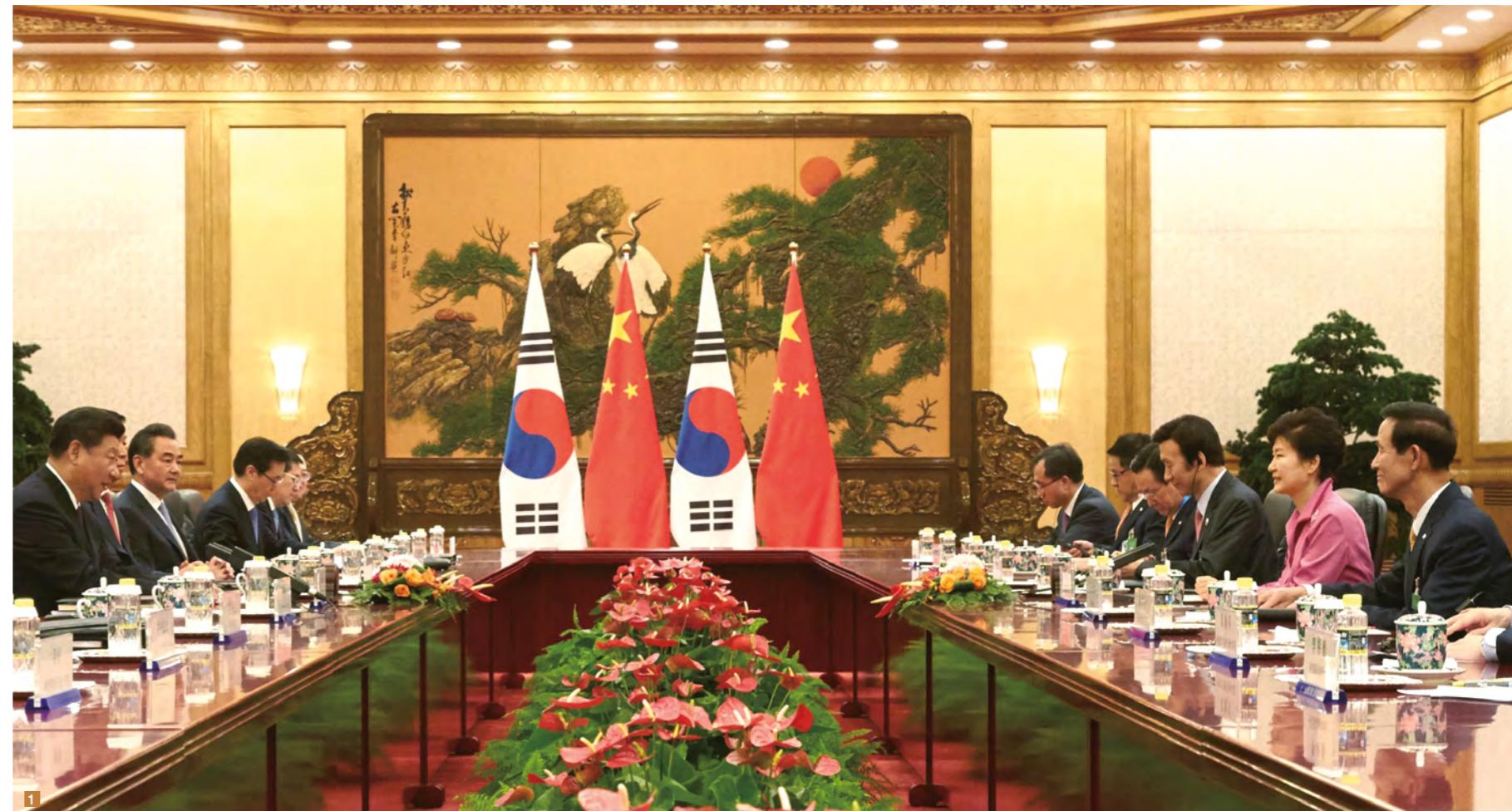
한·중 정상회담 및 특별오찬

●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대회〉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Xí Jīnpíng)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및 특별오찬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특별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는데 있어 어떻게 협력해 나갈 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한반도 정세 발전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의사소통 및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회담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양자 특별 오찬에 참석했다. 중국은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한 정상들 중 유일하게 박 대통령과 오찬을 진행했는데, 이는 박 대통령의 참석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각별한 배려와 환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평소 박 대통령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빙고'를 비롯해 다양한 한국 노래가 연주됨으로써 양국 간 교류가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금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취임 이래 여섯 번째로 개최된 정상회담으로, 양국 정상간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고, 광복 70주년·총전 70년을 맞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오늘 회담은 종전 70년과 또 우리의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에 개최가 되는 만큼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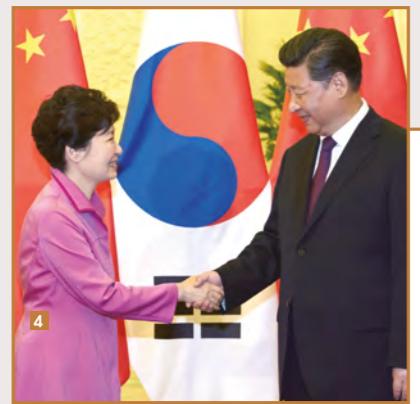
지난 세기 양국이 함께 겪은 환난지교의 역사가 오늘날 양국 우의의 소중한 토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양국이 직면한 여러 도전을 해결하는데도 잘 협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2015.09.02. 박근혜 대통령

”

1 2 3
한·중 정상회담 및 특별 오찬·20150902





“

한국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중국에도
‘많은 사람이 함께 장작을 모으면 불이 커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함께 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우리가 정한
방향대로 공동 발전의 길을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아
시아의 진흥을 위해 함께하고,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네 개의 동반자’
목표를 향해 뻗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

2015.09.0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4

한·중 정상회담 및 특별 오찬·20150902

리커창 총리 면담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리커창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 방안,
한·중 FTA 등 양국간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금번 면담은 취임 이래 4번째로서, 양국의 협력관계의 내실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 정무분야

한·일·중 정상회의, 10월말 또는 11월초 포함 상호 편리한 시기 개최 기대

차 대통령 동북아개발은행 제안, 리총리 동제안 중시 및
진지한 검토 예정 언급

2. 경제분야

FTA 활용 극대화 위해 비관세장벽 해소

문화분야 규제완화와 세계시장 진출 위한 협의체 구성

고부가가치 신산업분야의 협력 강화 조속히 추진

양국간 금융 협력 강화



5

1 2 3
리커창 총리 면담·20150902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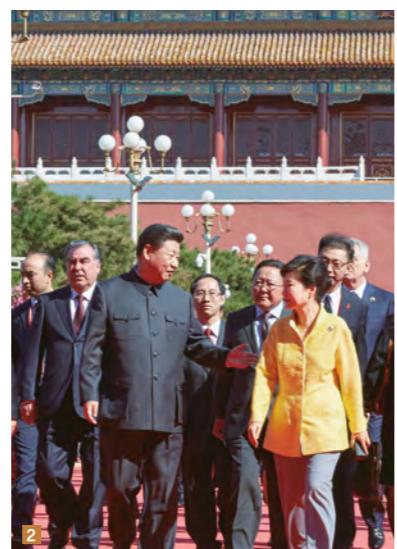
전승 70주년 기념대회 및 오찬 리셉션



●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방문 첫날 저녁, 시진핑 주석 내외가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한데 이어 9월 3일 오전에 천안문에서 개최된 〈전승 7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등 각국 정상 30여명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 기구 대표 10여명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도보로 이동해 천안문 성루에 올라 「시진핑 주석」의 기념연설 및 열병식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한·중 관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관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화합 및 협력을 촉진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2 3 5

전승 70주년 기념대회·20150903



3



4

시진핑 주석 초청 오찬 리셉션·20150903





상하이

上海・SHANGHAI

박근혜 대통령 중국방문

2015.09.03. - 2015.09.04.



베이징
● 北京 BEIJING
▼ 상하이
上海 SHANGHAI

2015년 9월 3일



大韓民国臨時政府旧址



2015년 9월 4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

13-14

상하이
동포
오찬간담회

15-16

한·중
비즈니스 포럼

17-18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



•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독립항쟁사의 상징인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청사를 새롭게 단장하는데 기여해준 중국 정부와 상해시장, 황포구청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수많은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정부가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던 「이승만·박은식·이상룡·김구 선생의 후손과 기념사업회 대표」, 「김우전 애국지사」, 「중국인 독립유공자 저보성씨의 후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어내겠습니다.

”

2015.09.04.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오늘 재개관식은 우리 독립항쟁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한
중 양국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임시정부 청사
가 우리 역사의 뿌리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 되
길 바란다.”라고 했다.

축사 후 박 대통령은 테이프 커팅식에 참석한 후, 「조범래 독립기념관 학예연구
관」의 안내로 참석자들과 함께 전시관 곳곳을 둘러보며 자랑스러운 우리 독립
운동의 역사를 확인했다.

1 2 3 4 5 6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 · 20150904

상하이 동포 오찬간담회



●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9월 4일, 상하이 인근 지역 동포 260여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인 상하이를 방문한 것에 대한 소회를 표명하는 한편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동포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주상하이총영사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사콜센터 서비스'를 언급하며, 동포 사회 발전과 역량결집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광복군으로 독립을 위해 공을 세운 「김우전 한국광복군 동지회장」과 중국인으로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저보성씨의 후손 저정원씨」, 중국 최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인턴 1기생 「이은혜씨」가 참석해 한중 협력을 위한 동포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 2 3 동포 오찬 간담회 · 20150904

한·중 비즈니스 포럼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대한상의〉, 〈KOTRA〉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공동 주관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축사를 통해 한·중 FTA라는 새로운 경제협력 시대를 맞아 양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포럼에 참석한 400여명의 양국경제인들을 향해 ‘두 사람이 한 마음이면 단단한 쇠도 자를 수 있다.’는 뜻을 가진 ‘이인동심(二人同心) 기리단금(基利斷金)’을 언급하며 “양국 경제인들이 한 마음으로 뜻과 힘을 모아 눈앞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을 계기로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두 차례 개최되어 현지 전승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우리 188개사, 중국 598개사가 참석해 약 2.8억불(약 3,100억원)의 계약이 체결됐고, 대기업 유통망을 활용한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의 상생모델이 창출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중국 방문 경제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은 대북 문제에 있어 중국의 협력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한편, FTA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및 벤처펀드 조성 등 다양하고 풍성한 경제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1.

FTA 효과 극대화로 2020년 10조불 규모의 중국 소비시장 본격진출

FTA를 계기로 Made in China(생산기지)에서
Made for China(소비시장)로 진출전략 전환

방중 계기 '품질검사·검역 등 비관세장벽 해소',
'민관 교역·투자 증진을 위한 협의체널 구축',
'전자상거래 등 소비재 유통채널 확보' 등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MOU 체결

2.

한·중 문화 공동시장 조성 논의 및 2,000억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박 대통령, 양국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방송 등 콘텐츠
공동제작, 공동배급을 통한 공동시장 조성 및 세계시장
진출 논의

한국벤처투자와 中CDBC는 2,000억원 벤처펀드를 조
성하여 문화콘텐츠·S/W·소비재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
(국가간 벤처펀드 중 역대 최대규모)

3.

2020년 1.2조불 규모의 中 보건의료시장 본격진출 등 신사업 협력 강화

「서울 성모병원-상해 류진병원 간 원격의료 협력 MOU」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총 22건의 MOU 체결, 보건의료·로
봇·차세대 이동통신 등 고부가가치 협력 강화

4.

동북아개발은행 추진 등 동북아 개발 논의 주도

AIIB 출범 및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협력, 우리의 유라시
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간 연계 등을 통
해 동북아 개발과 지역통합 협력 강화



I. 무역투자 활성화

MOU 등 명칭

비관세 장벽 해소

- 품질검사·검역 협력 MOU
- 표준·인증 분야 협력 MOU

민관 교역투자 촉진

- 민관 교역, 투자 증진협력 MOU

현지 유통채널 확보

- 해상간이통관 시스템 활용 소비재 수출 MOU
- 전자상거래 협력 MOU
- 대중소기업 협력 중국내수시장 진출 MOU
- '육심원' 아트상품 현지진출 협력 및 수출계약

공동투자 협력

-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공동 창업·투자에
관한 MOU

3국 공동진출

- 한·중 합작투자 계약

체결 기관

韓) 산업통상자원부
中) 질검총국
韓) 화학시험연구소(KTR)
中) 평호시 국제수입상품성

韓) KOTRA
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韓) 인터파크
中) 지모시 소재 2개사
韓) 판다코리아
中) 메이리슈어
韓) 코웨이, HMDC, 대성아트론,
L&P 코스메틱
中) CJ IMC(중국 법인)
韓) 갤러리에이엠
中) 선양유이무역

韓) 미래과학기술지주
中) 상해 산업기술연구원

韓) 임진에스티
中) 저장세이퍼락특수너트
유한공사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품질검사검역 분야 양국 장관급 협의체 신설, 중국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對중 수출증진
한국기업의 중국 인증허가 취득 관련 협력, 평호시
수입상품성내 한국의 우수 인증제품 전시, 판매 등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기업간 교역투자 및 기관간
협력 강화, 수출애로사항 해소 촉진

올해 첫 시행하는 해상간이통관을 활용하여對중 소
비재 진출 확대
한국기업의 한류스타 자원과 중국기업의 네트워크
를 결합, 한국 화장품, 패션용품 수출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소비재 수출 확대
국내 유명 아트상품인 '육심원' 제품의 중국 현지 오
프라인 시장 진출 확대

공공 기술사업화 기업의 중국 진출 및 공동투자사
업 기회 확대

현지 생산공장 설립을 통해 한중 공동 제3국 진출
추진



1 2

한·중 정상회담 및 특별 오찬·20150902

II. 문화 협력 강화

MOU 등 명칭	체결 기관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펀드조성	韓) 한국벤처투자 中) CDBC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추진 (문화콘텐츠, SW 등에 투자)
라이센싱	韓) 스튜디오더블유바바 中) Space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라이센싱 시장 진출, 원소스 멀티유즈 수출 확대

1 2 한·중 비즈니스 포럼 · 20150904



III. 신산업 등 협력 다변화

MOU 등 명칭	체결 기관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보건의료		
• 스마트케어 시스템 기반 만성질환관리모델 구축 MOU	韓) 서울성모병원 中) 상해류진병원	원격의료 및 병원정보시스템 對중 수출 확대
• 의료관광 상품 공동개발 계약	韓) 보건산업진흥원 中) 여행사총사(CTS)	중국 최대 국영여행사인 CTS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 의료관광 활성화
• 헬스케어 지분투자 MOU	韓) 라파스 中) 복성제약	중국 제약분야 5위업체인 복성제약으로부터 600만불 투자 유치
• 의약품 공급 MOU	韓) 동아에스티 中) High Hope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의약품(불임치료제)의 중국시장 독점 공급
• 바이오의약품 기술협력 MOU	韓) 휴온스 中) Northland Bio	중국 바이오시약 기술을 도입하여 건선치료제 공동 개발 및 시장 진출
• 항체의약품 개발 합작회사 설립 MOU	韓) 앱콘택 中) Sinomab	항체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자본 유치 및 중국내 합작회 사 설립
• 의료기기 투자진출 협력 MOU	韓)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中) 위해시 상무국	위해시 진출 예정 우리기업 지원 및 중국시장 진출 확대
• 중국 공장진출 협약 MOU	韓) 대성마리프 中) 위해시 임향경제개발구	중국 공장 설립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 및 수출 다변화
• 합작기업 설립 계약	韓) 셀앤텍바이오 中) 위고그룹	합작기업 설립 통해 對중 수출 확대 및 세포진단분야 경쟁력 제고
• 전략적 제휴 MOU	韓) 셀앤텍바이오 中) 총강그룹	자가혈 치료제 개발 협력 및 중국 시장 진출 확대
• 의료기기 투자진출 기관 협력 MOU	韓)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中) 진현 의료기기산업단지	진현산단 진출 예정 우리기업 지원 및 중국시장 진출 확대
• 업무제휴 계약	韓) 굿풀 中) 쉬허텐 용한공사	중국시장 판로 확보 및 사업 확대

보건의료

- 의료기기 투자진출 협력 MOU
- 전략적 제휴 및 장비공급 MOU

韓)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中) 연태시 상무국

연태시 진출 예정 우리기업 지원 및 중국시장 진출 확대

로봇

- 로봇산업 협력 MOU

韓) 로봇산업협회(KAR)
中) 전자연구원

산업용 로봇의 최대 수요시장인 중국 업계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판로 확대

환경

- 한국 수처리 특수기술의 중국 프로젝트
• 참여 MOU

韓) 한국워터테크놀로지
中) 중신원균환경보유한공사

중국 정부기관-국영기업 연계를 통해 중국 환경 인프
라 시장 진출

차세대 이동통신

- 5G 공동연구 LOI 체결추진

韓) 전자통신연구원(ETRI)
中) 정보통신기술연구원(CAICT)

양국 이동통신 분야 공조를 통해 5G기술 선행 개발 및
표준화 주도

전자부품

- 전자부품소재 협력 MOU

韓) 전자부품연구원(KETI)
中) 상해산업기술연구원

전자소재, 메디컬 IT, IoT 등 분야 공동 R&D 통한 신규
사업기회 창출

산업기술

- 산업기술 협력 MOU

韓) 산업기술진흥원(KIAT)
中) 상해산업기술연구원

한중기업의 공동 R&D 및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 및 기술분야 활성화

항공기

- 한국 항공기 부품의 중국 수출계약

韓) 하이즈항공
中) SA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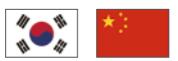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첨단산업, 항공기 부품시장 진출

자동화 설비

- 자동화 설비 수출 MOU

韓) 현대워아
中) 산환그룹

중국 산업 고도화에 따른 한국 수출 산업 확대



2015

박근혜 대통령
중국방문기

발행일

2015.10.



2015

박근혜 대통령
중국 방문기
